

문학과 산책

새로운 길

朴水鎭
(시인, 동요작사가)

엎드려 복을 간구하기보다는
말과 몸으로 하여 복을 짓게 하고
가볍지만 뚜렷한 발자국 남기며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
위대한 업을 이룰 새해입니다.
가다가 때로는 훌리게 될 눈물까지도
소중한 생명의 은총으로 받으며
삼백예순다섯 날
그 모든 하루하루가 쌓여
또 하나의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도록
가슴속에 해를 품고 길을 나섭니다.
새해 새날 새로운 길입니다.
그 누구도 아직 가본 적 없는
크고 밝은 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 달력이 바뀌며 한 해를 시작하고 설을 지내면서 새해를 맞이한다. 시작을 견고히 하자는 본래의 의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한 해의 출발이다.

신년 인사에 꼭 떠올리는 복은 무엇일까?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는 사전적 설명이다. 형체도 없고 어떤 맛도 없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애매하지만 마음속으로 빌어보는 간절함은 모두가 똑같다.

하루하루를 잘 보내려고 애써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가는 일 년인데 지나고 나면 그렇게 빠를 수가 없다. 무엇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이 보낸 한 해를 후회하며 누구나 작년 보다 나은 한 해를 가슴에 품는, 아직 가보

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한다. 그저 가다가 힘들면 쉬고, 보고 싶으면 보는 그런 여행의 길은 아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위대한 업을 이루는, 가슴에 해를 띄어 품어보는 크고 밝은 희망의 길을 걷고 싶다.

그 길은 막연하게 그려본다고 해서 걸어지지 않는다. 이일 저 일을 생각해봐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반갑게 맞아야 한다. 너무 큰 것을 바라는 데서 내 일을 등한시하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 막연히 잘해야겠다는 욕심은 어떤 일에서건 장애일 수밖에 없다. 좋은 결과만을 목표로 삼는 것 보다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 한 걸음씩 구체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모과

이경엽(수필가)

가끔은 격 없이 주고받는 외설적인 농담에 박장대소가 터져 나오는 걸 보면 나이가 조금 들긴 들었나보다. 누군가 사람을 나이대별로 구분하여 남자는 불, 여자는 과일에 비유를 하였다. 어찌 그리 절묘한지 들을 때마다 포복절도 하고 만다.

나이 육십 대를 남자는 반딧불, 여자는 모과라고 하였다. 이유인 즉 반딧불은 불인가 싶어 잡으면 꺼지기 때문이고, 모과는 먹지도 못하는 것이 냄새만 풍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정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농담이다. 그러나 한참 웃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은 서글퍼지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달력이 또 한 장 찢겨 나갔다. 달랑 두 장만 남아 사고무친 남매처럼 문풍지를 비집고 들어오는 된바람에 파르르 쎄다. 갈잎이 우수수 떨어진다. 바야흐로 조락의 계절이다.

며칠 전 일이 있어 경비실에 잠시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과향이 그윽하다. 둘러보니 창가에 모과 대여섯 개가 나란히 놓여있다. 화단에 탐스럽게 매달려 있던 것을 따다가 진열해놓은 모양이다.

모과 특유의 향긋한 냄새는 무어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모과 향은 후각을 질게 자극을 하면서도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 자연 향으로는 아마 으뜸이 아닐까 싶다. 그중 하나를 집어 들고 코에 대니 금방이라도 향기에 취할 듯하다. 문득 나이 육십 대는 모과라는 비유를 떠올리니 속으로 웃음이 나온다.

“나이 육십이 되면 과연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긴 할까?” 하고 약간 비틀어 생각을 해보았다. 암만 생각을 해봐도 고개가 저어진다.

다른 것 하나를 집어 들어 냄새를 맡으려다 보니 노랗고 매끄러운 부분에 누군가가 한자 몇 글자를 끼적여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리 과일 망신은 모과 시킨다지만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누가 과일에 낙서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며 글을 읽어보았다.

‘苟子之不欲(구자지불욕), 雖賞之不竊(수상지불절)’

유려한 필체는 아니나 또박또박 쓴 것으로 보아 뜻을 정확히 알고 쓴 모양이다. 어느 고전에 나오는 말 같긴 한데 의미는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스마트 폰이 참으로 유용하다. 검색을 해보니 논어의 안연 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만일 탐욕이 없다면 누가 상을 준다고 해도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나도 머지않아 욕심 대가 된다. 나이 욕심을 이순()이라고 했다. 그 나이가 되면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된다고 한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러나 백세시대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요즘시대에 예수는 청춘이나 매한가지다. 그 나이가 되면 과연 이순의 경지에 이르게 될까 하는 의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다.

이순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삶의 도리를 이해하게 되어 무리한 욕심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탐욕이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면 이순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글귀가 쓰인 모과를 코에 가까이 대고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았다. 흥하다는 생각보다는 본래의 모과 향에다 고전의 향기가 더해져 향이 더욱 그윽해진 느낌이다. 나이 욕심 대를 모과에 비유한 것은 어찌면 이순을 말한 것이 아닐까 싶다. 욕심의 힘은 예전만 못하나 마음은 따뜻해지고 무르익는 경지를 이룬 듯하다. 참으로 절묘한 비유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나와 살면서 나이 욕심에 모과 같은 향기를 풍길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